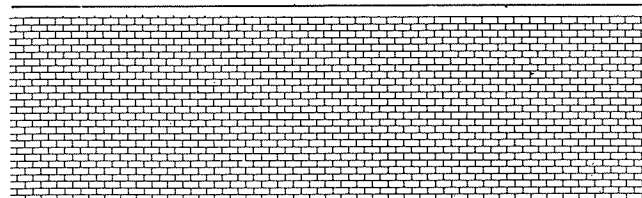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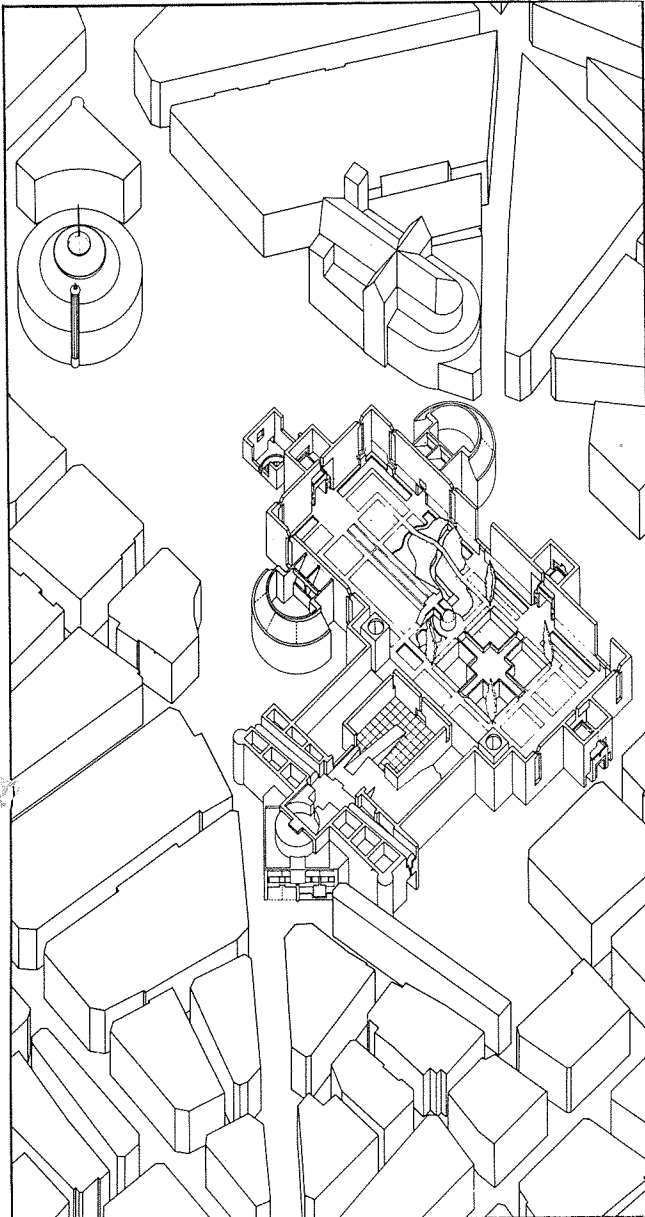


月間建築情報



81. 4. 11 ~ 5. 10



主要工團 工場入宅 활발 - 경기회복 조짐

올들어 36社, 相談진행 業体도 104社

4월11일, 商工部가 분석한 주요 工團의 입주현황에 의하면, 半月工團의 경우 80년도 입주분양실적이 31社(59,310평)에 불과했으나 81년에 들어 3月末까지의 1·4分期 실적은 16社(62,500평)가 분양을 마치고, 또 현재 상담중인 업체도 90여사를 넘고 있어, 34만평의 분양이 예상되고 있다.

昌原工團의 경우 80년도에 3社가 입주했는데 81년에는 이미 3社가 신청을 마쳤고 4社가 신청중이며 2社가 상담 중등, 80년에 비하면 한층 활기를 띠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龜尾·馬山·裡里工團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景氣回復의 조짐을 직접 알려주는 현상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86년까지 養老院 500개소 新築

보호대상 老人 5만여명 수용 - 보사부

4월11일 保社部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老人은 전체 국민의 3.9%인 146만명이며, 이중 보호시설에 수용해야 할 보호대상노인은 전체 노인 중 3.5%인 5만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보호대상 노인들을 수용할 養老院施設을 연차적으로 擴充하기로 하고 오는 86년까지 1개 시설당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養老院 500개소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분산, 신축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財源조달에 나섰다.

政府工事 都給下限線 확정

上位 142社는 「5,000만원이하」 못말아

4월13일 建設部가 中小建設業체를 육성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81년도 建設工事都給下限線」의 1건당 최저선은 5,000만원(80년도 4,000만원)이며 최고 도급한도액 소유자의 도급하한선은 5억원(80년도 3억원)으로 결정됐다.

都給下限線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土木·建築·土建등 일반건설업 면허자 503개사중 142개사(도급한도액 40억원이상)로, 이들 업체는 5,000만원 미만 공사는 도급 받을 수 없다.

建設部는 이들 142개사를 도급한도액을 기준하여 19개 群으로 나누어 群別下限線을 따로 정했다.

따라서 81년도 도급한도액 7,010억원인 現代建設(1群)은 5억원 미만 공사를 맡을 수 없으며, 도급한도액이 3,000억원 이상인 東亜·大林·韓國重工業은 3억원 이하의 공사는 맡을 수 없게 됐다.

都給下限線制度가 적용되는 공사는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이 발주하는 일반공사에 한하며 민간이 분주하는 공사등은 제외된다.

서울 江南(汝矣島~蠶室), 地域煖房 적합

熱併合發電所건설 適地조사 - 動資研

4월13일, 動力資源 研究所가 UNDP의 협력 아래 연구한 「地域煖房 및 熱併合發電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1차개발대상으로 서울 汝矣島·東部二村洞·盤浦·永東·蠶室을 연결하는 江南地域이 가장 적합하며, 이 지역에 대한 熱源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唐人里發電所 外에 蠶室地域에 1개의 熱併合發電所를 建設해야 될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 江南地域이 이같이 대상지역으로 적합한것은 ① 방대한 熱需要 및 기존 火力發電 인접 ② 氣候條件의 적합 ③ 中央集中煖房方式 보급 ④ 높은 人口密度 및 신규주택 위주의 住宅型態 ⑤ 配管 시스템에 적합한 평탄한 지역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動資部는 이같은 研究調査結果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韓電·서울 시등과 협력,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된다.

地域煖房이란 住宅·商店·病院 또는 工場등에 蒸氣 또는 溫水를 1개 또는 수개의 집중된 熱源플랜트로부터 配管을 통해 熱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熱併合發電의 용도는 크게 나누어 産業體 工程 熱供給과 지역난방용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업은 지역난방을 위한 熱併合發電의 이용에 해당된다.

工事費 절감 등에 技術開發補償費 지급

서울시, 節減額의 50% 범위 내에서

4월13일, 서울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발주 시공중인 施設工事に 새로운 技術工法등을 사용, 工事費의 節減, 工事期間의 短縮등 효과가 뚜렷한 경우에는 設計審査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당해 節減額의 50%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技術開發補償費를 지급키로 제도화 하였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각 공사발주 부서별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적극 시행, 추진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했으며, 시철공사계약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공사발주부서에서 기술개발 보상대상 공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청 관리관에게 보고토록 조치했다.

非業務用 土地 2,200萬坪 年内売却

정부-企業 非業務用不動産 처분계획 확정

4월1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80년 不動産申告對象企業, 1,198개 업체가 가진 신고한 4억5,300만평(토지 4억4,300만평, 건물 1,000만평)중 非業務用 800만평과 業務用중에서 非業務用으로 판정된 1,400만평등 모두 2,200만평을 年内에 매각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정부는 不動産景氣가 크게 침체돼 있어 企業이 내놓은 不動産의 願買者가 거의 없을것으로 보고, 土地開發公社에 매각할것에 대비, 81년 발행키로한 2,500억원의 土地債券(土開公 자체운영자금 500억원을 포함)을 필요에 따라 증액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韓國銀行本店新築 年内着工 예정

第一銀·住銀本店 등도 新築할 예정

韓國銀行은 현재 本店 위치에 빈땅 일부를 활용, 20층 짜리 현대식 매머드 빌딩을 신축한다는 계획아래, 지난해 公募를 통해 선정한 設計를 토대로 實施設計 마련에 한창인데 이르면 年内에 착공하리라 한다.

第一銀行도 현재 신세계백화점 本店 건물이 너무 협소해 鍾路 신신백화점 자리에 20층짜리 건물을 신축할 계획 아래

백화점측과 이미 土地賣買契約을 체결, 주무관서의 事業施行認可 및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新築工事に 들어갈 계획이라 한다.

住宅銀行은 汝矣島에 本店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나 土地가 좁아 고심 중인데 市内에 마땅한 土地가 물색되지않는한, 여의도에 신축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韓一銀行은 南大門路 2가에 신축중인 本店 건물이 거의 완공됨에 따라 오는 7월께 옮겨갈것을 서두르고 있다.

7 개市 460萬坪 宅地開發予定地区로 告示

自然綠地地域 400萬坪, 住居地域 44萬坪

4월14일 정부는 서울·釜山·仁川·大邱·水原·安養·城南 등 7개 도시의 12개 지역 460만 1,000평을 宅地開發 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予定地区로 지정 고시했다.

건설부가 주택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告示한 宅地開發 予定地区는 △ 서울이 開浦地區 245만 2,000평, 高德地區 90만평 등 344만 2,000평으로 가장 많고, △ 釜山이 多大 1·2地區, 安樂·堂甘·萬德 등 5개地區 46만평, △ 仁川 佳佐地區 15만5,000평, △ 水原 梅灘地區 6만평, △ 安養 浦-地區 30만평, △ 城南 下大院地區 2만 1,000평, △ 大邱 松峴地區 16만 3,000평으로 돼있다.

건설부는 당초 81년부터 86년까지 필요한 公共部門 小宅地 4,225만평을 모두 宅地開發予定地区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1차로 住宅不足率이 심각하고 土地供給이 어려운 서울 등 7개 도시에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予定地區를 도시계획구역상 用途地域별로 구분하면 自然綠地 401만 4,000평, 住居地域 43만 7,000평, 商業地域 15만평으로 정부가 대규모의 自然綠地를 풀어 宅地로 만드는것은 해방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00년까지 300萬戶 건설해도 住宅難

경제기획원-長期展望

4월15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長期人口展望은 앞으로 經濟社會開發政策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미래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크다.

이중 住宅問題에 대해 본다면, 주택 문제는 86년까지 138만호를 건설하더라도 不足率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며 87~2,000년에 294만 6천호를 공급하더라도 부족율은 오히려 늘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核家族化가 계속돼 가구당 평균인원수가 86년에는 80년의 4.6명에서 4.3명으로 낮아질 전망이고, 주택부족이 두드러지고 있는 서울·釜山 등 대도시의 人口集中도 가세돼 住宅難이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住宅不足率은 全國의으로 80년 25.5%에서 86년에는 21.4%로 낮아질것이라지만 대도시도 그렇게 될지는 극히 의문이다.

2,000년에는 住宅不足率이 현재보다도 높은 26.3%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학교의 콩나물교실은 中高校까지 확대될 뿐 아니라 大學進學人口도 현재 추세대로 늘어간다면 86년에는 현재의 수용능력보다 5배나 돼 과외등 해묵은 社會問題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嶺南·湖南 일부지방에 地震 浦項은 震度 4, 벽 금가고 굴뚝 넘어져

4월15일 상오11시47분40초 부터 약1분간 慶北浦項 東쪽 65km 바다밑 (북위 35°7' 동경130°1')에서 地震이 일어나 大邱·安東·浦項·金海등 秋風嶺 이남지역과 光州지역 등에서 집과 창문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었다.

震央地에서 가장 가까운 浦項지방에서는 震度 4의 中震이 일어 일부 주택가에서는 벽이 갈라지고 굴뚝이 넘어지기도 했으며 어떤 아파트에서는 주민의 머피소동도 빚었다. 浦項시내의 백화점과 아파트 선반의 물건들이 모두 떨어지고 굉음이 있었으나 정확한 피해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大邱地方은 이날 상오 11시47분40초부터 약 3초동안 震度 2의 지진이 있었고, 安東地方에서는 상오11시49분30초부터 5초간격으로 3차례 震度 3을 기록했다.

이밖에 蔚山地方은 震度 3의 지진이 4~5초, 古里地方도 震度 3을 기록했고, 金海에서는 약 10초동안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어, 관측자가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보고했다.

中央觀象臺는 이번 地震이 서울의 地震計에도 震度 1로 기록됐으며, 濟州道를 제외한 南韓 전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이나 정확한 지진의 규모는 각 測候所의 보고를 받아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있었던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지진은 震度 5를 기록했던 78년10월 7일 저녁~8일 사이의 忠南洪城의 지진이었다.

障者의 學校 11개소 建立 - 문교부 86년까지 총 697억원 투입

문교부는 4월15일, 내년부터 오는 86년까지 697억원을 투입, 장애자를 위한 11개의 特殊學校를 신설하고 760개의 特殊學級을 증설하여 장애자들의 就業率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문교부가 마련한 「特殊教育振興方案」에 따르면, 이같은 특수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로 현재 23.1%에 불과한 중도 장애자의 취학율을 86년까지 60%로 높이고 경도 장애자의 취학율도 현재의 3.71%에서 30%로 높인다.

서울市 - 都市計劃事業에 따른 補償 개선 土地·建物보상 - 최근 鑑定價의 100%까지

4월17일 서울시에 의하면 土地 및 建物補償에 있어서 중진에 민원의 소지가 크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컸던 보상계획·시기·방법·절차 등을 폭 넓게 개선한 새로운 都市計劃事業補償節次方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같은 보상업무개선방안은 道路·上下水道·地下鉄·公園·市場·住宅등 서울시가 벌이게될 53개의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적용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土地 및 建物補償에 있어서 ① 시보에만 게재, 공람을 개별 통지해온데다가, ② 보상가격도 심하면 감정후 1년 이상이나 지나서 보상하거나 ③ 그것도 감정가격의 40~60%밖에 보상하지 않았으며, ④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거나 심지어 보상도 끝

나지 않은채 공사에 착공했으며, ⑤ 협의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을 지체, 직·간접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민원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都市計劃事業이 확정되면 사업내용을 비롯 보상계획·시기·방법등을 土地 및 建物所有者 개인별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도 공고키로 했다.

또 補償金도 보상시점 1개월 이전의 감정가격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그 보상협의기간도 2개월 이내로 못박아 이 기간안에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무리 짓도록 했다.

84년까지 職業訓練院 5개소 建立 身體障者·女性專門·工藝등 - 노동부

정부는 신체장애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직업훈련을 전달할 身體障者訓練院 2개원과 女性專門訓練院 2개원, 工藝訓練院 1개원 등 5개의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4월20일 밝힌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特殊職業訓練院 設置事業計劃에 따르면 이들 5개 훈련원은 오는 82년부터 착공, 84년까지 완공하며 주로 대도시와 산업체 또는 관광단지 인접지역에 설치하며 훈련기간은 1년정도로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들 5개 훈련원·건립 소요자금 전액을 借款으로 충당할 방침아래 현재 아시아開發銀行(ADB) 측과 약 1,000만달러(한화 67억원) 상당의 차관도입교섭을 추진중이다.

80년도 國內建築工事実績 1조8,358억원 建設協會조사 - 전국 508개業체

4월22일 大韓建設協會가 분석한 80년도 國內建設動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건설업의 계약실적은 土木부문에서 9,088억 8,400만원, 建設부문 1조8,358억700만원, 特殊工事業부문 830억1,600만원등으로 집계되었으며, 業體당 평균 55억6,635만원의 계약실적을 보였다.

이는 79년도의 계약실적 2조8,860억3,000만원에 비해 2% 감소한 수준인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建設業체가 전체의 75.5%를 계약했으며, 慶北이 5.6%, 釜山 4.3%, 京畿 2.5%, 全南, 慶南등의 순이다.

海外建設輸出 계속 好調

1.4分期受注額 19억 1,000만달러

지난1.4분기(1~3월)중 海外建設受注額은 19억1,900만달러로, 작년 同期의 7억9,900만달러에 비해 2.4배로 늘었고, 올해 年間目標 70억달러의 27.4% 진도를 보이고 있다.

4월15일 建設部에 따르면 이같은 建設輸出 好調는 국제물가 상승으로 工事單價가 오르고 있는데다 海外建設業체들이 受注活動을 강화한데 따른것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 올해 年間 建設輸出額이 작년실적 82억5,000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駐車場 用途變更 - 集中團束
서울시, 1차로 都心圈 건물대상

4월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물 부속 駐車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사무실·점포·창고 등으로 용도를 바꾼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시정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斷電·斷水와 建物使用制限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사대상 건물 2,400여 가운데 1단계로 鍾路·中區등 도심권의 건물 390개를 4월말까지 조사하고 나머지 2,000여 건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駐車場整備地區 완화시책 차질 ?

서울시 관련부서간에 異見을보여

駐車場整備地區의 완화문제를 놓고 서울시의 관련부서들이 서로 異見을 보여, 당초 7월초부터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그 완화시책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駐車場에 관한 운영 및 관리책임부서인 서울시 교통국은 駐車場法(79년 7월공포)에 따라 서울시 전역(자연녹지·그린벨트 제외)을 주차장 설치기준이 엄격한 駐車場整備地區로 지정한 것을 무리라고 지적, 都市計劃局에 그동안 주차 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를 개정, 교통이 혼잡하지않은 外廊地域에 대해서는 駐車場整備地區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都市計劃局은 해제지역에 대한 심사가 어려운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어 駐車場整備地區의 완화문제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都市計劃局內의 책임부서인 都市計劃課는 그동안 교통국에 건의와 많은 시민들의 완화요청에 따라 駐車場整備地區의 완화를 검토했으나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다 완화조치후 혜택을 받지못한 주민들로부터의 항의를 우려, 완화조치 필요성은 인정한 채 작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 규정에 따르면 駐車場整備地區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계없이 150m²(45평)마다 차량 1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연면적 1,000m² 이상일 때 150m²마다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商業地域이나 연면적 2,000m² 이상일 때 400m²마다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토록된 他地域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違法建築처벌, 監理者의 建築主·施工者도

모범建築士등은 표창키로 - 서울시

서울시는 違法建築物이 적발되었을때 종래 工事監理者 위주로 처벌해오던것을 監理者를 비롯 建築士와 施工者도 함께 처벌하고 建築賞을 새로 제정, 模範 建築士나 施工者·建築主등을 표창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서울시내에 위법건축물이 늘고있는 原因이 監理者만 일방적으로 처벌받고 建築士와 施工者는 罰金刑 정도의 가벼운 처벌때문이라고 판단한것이다.

서울시는 警察과 合同團束班을 편성 4월27일부터 5월20일까지 서울시내 건축물에 대한 一齊調査를 실시,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같은 강력한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國民住宅 宅地 坪당 10만원이하로 공급
도시주변 綠地 해제 불가피 - 李 건설차관

李 건설차관은 앞으로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宅地坪은 평당 10만원 이하로 공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 차관은 4월27일 KBS-TV와의 대담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렴한 宅地坪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 이같이 말했다.

宅地坪을 평당 10만원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주변의 녹지 해제가 불가피하다.

李 차관은 또 국민주택도 살 수 없는 최저 소득계층을 위해 민간업체의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建設協會 - 設計·施工 一括發注를 촉구

中小建設業의 수직적 系列分業化도

5월 4일 大韓建設協會는 「韓國 建設業 그 잠재적 可能性」이란 논단을 통해, 현행 建設業法上 건설업은 단순히 設計圖에 따라 물리적 시공, 그것도 土木과 建築部門만을 시공케 돼 있고, 企劃·調査·計劃·設計·監理·試運轉등은 技術用役育成法上의 技術用役業者가, 그리고 電氣 및 通信工事등은 또 다른 면허업체들이 시공토록 돼있으나 우리가 指向하는 技術集約의 分野란 모두가 企劃·調査서부터 設計·施工·試運轉에 이르는 一括發注의 터언키이 베이스의 사업들이며, 여기에는 電氣와 通信도 불가분의 部分이 돼있다고 지적 이같이 촉구했다.

이 논단에서는 綜合建設業의 育成과 함께 고도로 전문화된 中小建設業을 키워 서로가 系列化된 수직적 分業이 가능토록 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稅制上의 誘引策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大氣汚染 好轉기미를 보여

低硫黃油 공급따라 - 환경청

5월 6일 環境庁에 따르면 서울의 아황산가스(SO₂) 오염값은 80년초부터 8월말까지의 평균치가 環境保全法上 기준치인 0.05 p.p.m의 배를 넘어선 0.105p.p.m이었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날도 100일에 72일꼴이었으나 4%의 高硫黃分대신 0.3%의 低硫黃分 병커C油가 80년9월부터 서울火力(당인리발전소)에 공급된 후 80년 한해동안의 아황산가스 평균치가 0.094 p.p.m으로 뚝 떨어졌고 혼탁한 날도 100일중 65일꼴로 호전되었다.

환경청을 動資部의 협조를 얻어 81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서울지역에 유탄분 4%의 병커C油대신 1.6%의 저유탄유를, 유탄분 1%의 輕油대신 0.4% 함유분을 공급키로 했다.

한편 80년말 현재 기타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치를 보면 부산이 0.058p.p.m 울산 0.053p.p.m, 대구 0.038p.p.m 이었고 혼탁한 날도 부산이 100일중 41일, 울산 47일, 대구 23일 꼴로 나타났다.

大企業들 - 大型社屋 · 빌딩 新築 再開

景氣回復기대, 事務所需要 늘어

5월 8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社屋이나 사무용 빌딩의 신축을 미루어 오던 大企業들이 경기회복의 기미가 뚜렷이 엿 보이고 자금이 풀려, 건설비 확보가 가능해지고 기업규모 확대로 사무실 수요가 증가될 것에 대비, 올81년에 들어 빌딩건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新東亞그룹의 大韓生命이 여의도에 60층규모의 국내 최대 사무실용 빌딩을 착공한데 이어

연면적 9,800평의 지상22층 빌딩을 가진 럭키그룹은 여의도에 33층 사옥을 트윈 타워빌딩형(쌍둥이 빌딩)을 건설키로 했다. 서울시에 건축허가신청한 럭키의 여의도社屋은 연면적 48,000평 규모 내외자 700억원을 들여 오는 8월에 착공, 84년 7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現代그룹은 지상17층 연면적 7,800평의 자가빌딩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 5,000여명이 부족, 教保빌딩 788평을 임차하여 大韓알미늄과 重細亞商船을 수용하고 있는데, 前 徽文高 자리에 연면적 20,000평 규모의 社屋新築을 계획하고 있다.

사옥이 없어 주력 4개회사를 비롯 대부분의 계열기업이 전세임차하고 있는 國際그룹은 漢江路에 확보된 2,800평 대지위에 연면적 20,000평 社屋을 신축키로하고 社屋建設팀을 구성, 외국 전문업체에 設計를 맡겨놓고 있다.

빌딩 5동을 운영하고있는 韓進그룹은 西小門소재 旧社屋 자리에 지상15층 지하3층 규모의 사무실용 빌딩을 80년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금년중에 착공키로 확정했다.

또 三星그룹은 3동의 빌딩 35,000여평을 가지고 있으나 太平路 再開 發地域을 매입하여 현재 三星빌딩보다 큰 규모의 새 빌딩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社屋이 있으나 사무실이 부족, 전세임차하고 있는, 鮮京그룹 등 재벌그룹과 대기업들도 대규모빌딩 신축을 검토하고있고, 자체빌딩 사정이 넉넉한 대기업은 大宇그룹을 비롯하여 大韓電線·三星·韓國火藥·雙龍·暁星·新東亞그룹 등이다.

새 國際空港 86년에 着工計劃

利川·水原·君子·南陽중 択一

尹子重교통부장관은 5월 8일, “현 金浦空港시설로는 8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현 金浦空港은 활주로 1개를 증설 확장하고, 86년에는 首都圏에서 國際空港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尹장관은 또 “현재 新空港후보지로 5개 지역을 놓고 立地여건등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國際空港후보지로는 서울 南쪽에 위치한 京畿道利川·水原·始興郡君子面·華城郡南陽面등 5개 지역중 1개소가 될것이라는데, 이중 利川이 가장 有力한 후보지로 등장하고 있다.

교통부는 그간 한국 과학기술연구소에 새 空港建設에 대한 用役을 주어 타당성 조사를 끝낸것으로 알려졌는데, 후보지중 君子와 南陽지역은 것떨이어서 難工事が 예상되고, 利川지역은 많은 農耕地를 取用해야 하며, 水原은 또다른 어려움이 있는등 모두 문제점이 있어, 후보지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이다.

교통부는 후보지가 선정되고 空港建設基礎作業이 끝나면 86년에 총규모 8,000억원으로 280여만평의 대지에 새 空港建設工事を 착공, 91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이다.

國家技術資格취득자 76만 5천명 - 80년말

技術士는 土木·建築분야가 70% 점유

5월 7일 韓國技術檢定公團에 의하면, 80년12월말 현재 技術士·技師·技能士 등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技術人力은, 765,040명에 달하고 이들 技術人力 가운데, 技術士는 2,722명, 技師 1급은 61,075명, 技師 2급은 146,625명, 技能士 1급은 30,875명, 技能士 2급은 418,956명, 技能士補는 104,787명이다.

따라서 技術系는 모두 207,700명, 技能系는 모두 554,61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技術士資格取得者の 경우 분야별로 살펴보면 機械·金屬분야 229명, 電氣·電子·通信이 106명, 土木 1,167명, 建築 740명, 産業應用 128명, 國土開發 52명, 纖維 46명, 鑛業 46명, 造船 24명, 情報處理 17명, 에너지분야 15명 등이다.

土木·建築분야가 1,907명으로 기술사 자격취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82년에 初中高 141校 新設 - 문교부

5월 8일 문교부는 82년도에 신설될 국민학교 71개교, 중학교 45개교(공립 43, 사립 오), 고등학교 25개교(공립 18, 사립 7)에 대한 設立計劃을 承認했다.

지역별로 보면 國民學校는 서울 28, 부산 10, 경기 10,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남 4, 경북 9, 경남 5, 제주 1개교 등이다.

中學校는 서울 13, 부산 6, 경기 8, 강원 2, 충남 2, 전북 4, 전남 6, 경북 2, 경남 2개교이고, 高等學校는 서울 3, 부산 1, 경기 5, 강원 2, 충북 1, 충남 2, 전북 4, 전남 2, 경북 2, 경남 이 3개교이다.

地下鉄駅과의 地下通路 설치許可 - 서울

工事費는 建築主부담, 協約즉시 工事併行

5월 7일 서울시 地下鉄建設本부가 확정한 地下鉄入口의 인근건물내 설치계획에 따르면, 地下鉄 2, 3, 4호선상의 駟舍와 乙支路區間(2호선)의 지하보도를 인근건물과 地下通路를 통해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건설비는 희망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希望者와 受托工事に 관한 협약을 맺는 즉시 地下鉄工사와 함께 실시하고 공사가 끝나면 건물내의 通路部分을 제외한 全通路施設物은 서울시所有로하고 管理도 서울시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地下通路의 규모는 폭 4m 이상, 높이 3.2m 이상으로 하되, 연결부분은 地下鉄內 通路와 신청건물의 지하 1층 또는 지하 2층으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일단 설치된 出入口는 建物主가 임의로 폐쇄할수 없도록 하고 建物登記時 地下鉄連結通路 및 出入口의 명칭과 면적을 명시토록 했다.

서울시는 地下通路의 건설비를 m당 300만원으로 계산해놓고 있다.